

사회적 The Social Dialogue 대화 Brief

2025년 - 15호 | 통권 82호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노총 방문

- 김지형 위원장, 한국노총 방문 취임 인사 겸 집행부 간담회 -



▲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월 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인사를 나눴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1월 7일 오전,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상견례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의 복원과 상생의 노사정 관계 재정립을 위한 첫 걸음으로, 노사정 협력의 중심축인 한국노총과의 신뢰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김지형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함께 국가적 아젠다(Agenda)를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협치의 제도적 공간”이라며, “한국노총이 그간 보여준 사회적 책임 의식과 대화를 중시하는 노동운동의 전통은 한국형 사회적 대화의 기초가 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사노위는 국정정의 주요 파트너이자 노동계의 만형인 한국노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제·사회에 산적한 과제



▲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및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해결을 위한 진지한 대화를 이어 가겠다”며, “우선적으로 노사정이 함께 신뢰의 토대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의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노사정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esic**

담당 대외협력실 이현욱 전문위원

“노사정 목소리 균형있게 경청하는 ‘숙의의 공론장’ 만들겠다”

- 김지형 위원장, 한국경총 방문해 임원진과 상견례 겸 간담회 -



▲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이 11월 11일 한국경총에서 만나 인사를 나눴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1월 11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한국경총’)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 및 임원진과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김 위원장 취임을 계기로 경제계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경총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다지고 이를 통해

노사정 신뢰 회복과 사회적 대화의 복원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경총은 1970년 창립 이래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최전선에서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굳건한 기둥이자, 사회적 대화의 핵심 파트너”라며, “경총의 참여와 지혜가 더해질 때 사회적 대화는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한층 더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왼쪽)이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우리가 직면한 복합위기는 신뢰회복을 토대로 한 진정성 있는 대화와 참여 주체들의 적극적인 역할로 극복될 수 있다”며, “경사노위가 ‘신뢰의 촉진자’가 되어 노사정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경청·조율하는 ‘숙의의 공론장’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향후 각급 노사단체 및 본위원회 공익 위원들과도 순차적으로 간담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slc**

담당 대외협력실 이현옥 전문위원

경사노위, 스웨덴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와 간담회



▲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왼쪽 다섯 번째)이 오사 한손 스웨덴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 위원장(왼쪽 여섯 번째), 칼-울르프 안데르손 주한 스웨덴 대사(왼쪽 네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1월 17일 오후, 경사노위 위원장실에서 스웨덴 오사 한손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칼-울르프 안데르손 주한 스웨덴 대사를 만나 공식 간담을 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양국의 경험 및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스웨덴은 출생률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국가조사위원회는 출산율 제고와 노동시장 정책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차원에서 한국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사회적 대화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를 찾았다.

*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 Swedish Government Commission for A Future with Children, '25.7.1. 발족 / 조사 위원회의 목표: 저출생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아동·가족 친화적인 사회(family friendly society)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및 제안을 마련

김지형 위원장은 “현재 한국은 복합전환의 한가운데에 서 있으며 인구감소와 저출생 문제 또한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칼-울르프 안데르손 주한 스웨덴 대사(왼쪽)와 악수를 나누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에서도 저출생 대응은 이미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고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라며, “오늘 간담이 양 위원회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slc**

담당 대외협력실 손옥이 국제협력 전문위원

경사노위 「인공지능과 노동」 녹서 발간

- 인공지능 시대,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할 12가지 질문을 던지다 -



▲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과 노동 연구회' 참석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질문을 담은 '녹서(綠書)', 「인공지능과 노동(우리 사회가 답해야 할 12가지 질문)」을 발간하였다.

이번 녹서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 간 운영된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이하, 연구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회 전문가위원 및 관련 전문가 92인*의 의견과 관점을 폭넓게 반영하여 작성했다.

* 노동시장, 사회정책 및 노동법, 산업 및 경영, 기술혁신, 인재양성분야의 학계·기업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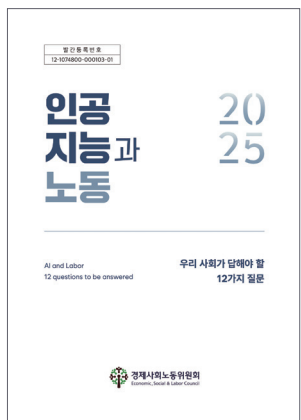
이번 녹서는 완성된 정책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4대 분야* 12가지 핵심 질문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질문은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 방향 설정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통 기반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녹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공통 과제를 담고 있다.

* (4대 분야) ▲인공지능과 인간사회의 조화를 위한 조건, ▲포용적 AI 전환을 위한 이익 공유, ▲AI시대 다양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역량 개발, ▲인공지능 전환과 노동법의 대응

장지연 연구회 좌장은 “이번 녹서는 인공지능과 노동의 접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앞으로 사회적 협의를 거쳐야 할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번 녹서가 향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사회가 답을 찾아나갈 때 유용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계사적 대전환 중 하나로 이로 인한 노동시장 대응전략은 향후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핵심 과제가 됐다”며, “앞으로 공식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참여주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slc**

담당 전문위원실 김지수 전문위원



▲ 「인공지능과 노동(우리 사회가 답해야 할 12가지 질문)」 녹서 표지